

목포시, 서남해권 선원 안전교육 책임진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 북항 배후단지에 내년 1월 중 개원 연간 선원 8천여명 목포에서 교육...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기대

목포시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이 준공을 마치고 내년부터 서남해권 선원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목포분원(이

하·목포분원)은 연면적 3,575.17㎡, 지상3층 규모로 총 132억의 국비가 투입돼 목포시 죽교동 695-3(북항 배후단지내)에 12월 준공됐다. 목포분원은 내년 1월 중 개원식을

갖고 선박승선에 필요한 법정교육, 해양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12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연간 8,000여 명 교육생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그간 목포항은 전국 여객선의 57%가 이용하는 대표 서남해권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선원교육훈련 기관의 부재로 지역 거주 선원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번 교육기관 조성을 통해 선원들의 민원이 대거 해소되는 물론,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목포분원이

안공됨에 따라 목포지역 선원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부산 이동시간, 부대경비 등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앞으로 목포분원이 교육훈련을 통해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목포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안 왕새우, 국민 안전 대표 먹거리 자리매김

신안군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새우양식장 배출수 수질과 배출수 인근 갯벌 퇴적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

금번 배출수 수질검사는 관내 새우양식장 338개소 중 미입식(조기폐사) 양식장 4개소를 제외하고, 적합 264개소(80%), 관리요망 55개소(15%), 주의 15개소(5%)로 대다수 양식장의 수질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 퇴적물 검사는 양식종료 후 사육수 배출시기에 맞춰 배출수 인근 갯벌지구 49개소(읍·면별 양식장 밀집지구 3~4개소)를 지정, 전체 시료건수 147건 중 적합 145건(99%), 관리요망 2건(1%)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이번 계기로 "새우양식장 배출수가 인근 갯벌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불확실한 추측성 논란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양식새우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와 함께 인식 개선 등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로 한층 더 다가서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검사는 국가에서 공인된 분석기관에서 국내·외 수질 및 퇴적물 기준치와 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값을 제시(설정) 하고, 검사에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해 항목별 기준치와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도(배출수 수질 검사 2회)와 달리 기존 배출수 수질검사 외 배출수 인근 갯벌 퇴적물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배출수가 갯벌에 미치는 영향, 갯벌의 오염정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양식장과의 인과관계(피해의 사실) 입증에 중점을 두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민선7기 들어 친환경 새우양식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과 함께 조력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점차적으로 친환경 양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관내 모든 양식장이 친환경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양식새우의 주산지로 전년도 기준 전국 양식새우 생산량의 52%(전남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72억가(894ha)에서 4,200여톤 생산, 왕새우양식 사상 첫 600억 원을 달성했다. 기동취재본부

함평군, 월산사·자산서원 향토문화유산 지정

함평군은 지역 문화재인 월산사와 자산서원을 각각 향토문화유산 제1·2호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 8월 '함평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문화유산에 대해 군이 관리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추진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향토문화유산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월산사와 자산서원을 각각 제1·2호 함평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최종 지정했다.

함평군 제1호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동면 월산사는 총무공 이순신

과 칠실 이덕일을 제창하는 곳이다.

1712년(숙종 38년) 이덕일의 사당이 대동면 학동마을에 건립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당 1동과 서재, 강당, 유허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제2호로 지정된 자산서원은 1616년(광해군 8년) 관제 정개칭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위패를 모신 곳이다.

지역 읍다면에 사당 1동과 강의재, 관리사, 유물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정개칭의 근재우독목목판 48매는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146호 지정·관리되고 있다.

함평=김광훈 기자



김준성 영광군수, 수산물 유통센터 현장 점검

김준성 영광군수는 28일 활어·선어 등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와 지역민 소득증대를 위해 법성면 매립지 일원에 준공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방문하였다.

군은 칠산 바다에서 계절별로 생산되는 꽃게, 민어, 농어, 노랑가오리 등 활·선어를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수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수탁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경석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 유통센터가 개장되면 다양한 먹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은 물론 인근 상가 발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비대면 디지털 영농교육 실시 온라인 화상교육·유튜브 활용한 영농기술 보급



무안군은 내년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올 한해 코로나19로 교육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대학 운영과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교육을 통한 농업인 전문인력의 양성과 청년농 장영지원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농촌지도자회원의 원예활동 교육과 청년 4-H회원의 드론 전문자격 취득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

무안=이기성 기자

코로나19 방역 의무관리시설·공공시설 등 1353개소 대상 전화 한통으로 OK...영암군 '안심콜 출입기록 서비스'

영암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대응하고,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에 따라 그동안 수기 및 QR코드 관리하던 기존방식을 개선하여 시설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일시와 휴대폰번호가 자동기록되는 안심콜 출입기록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식당,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방역의무관리시설과 군청사, 읍면사무소 등 1,353개소에 고유번호를 부

여하여 소상공인에게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덜어주며, 추가 필요 장소 발생시 서비스 영역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콜 출입기록 서비스는 방문자의 발신 전화번호와 출입시간이 즉시 자동 저장되고 기록된 정보는 4주후 자동삭제되며 통화료는 영암군에서 전액 부담하게 된다.

영암군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이 수기로 작성하던 방문기록을 전화한통으로

간편하게 등록하여 개인정보 유출이나 허위 전화번호 작성의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안심콜 출입기록 서비스가 군민과 방역당국 모두 안심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스카우터 한수원

